

고창군, 귀농귀촌도시 부문 11년연속 대상 수상

✎ 김준완 | 📅 승인 2023.05.24 10:56



고창군은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 11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군은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영농정착금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자의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이차보전을 하여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체험학교 등 4개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이해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재능기부사업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여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김준완 jwkim@jjn.co.kr